

(...8페이지에 이어)도 공개했다. 이런 외교문서는 '30년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시 외교부는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 간 협의까지 다 공개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 간 협상도 아닌 시민단체 면담 내용을 민감해서 못 내놓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무슨 국익을 해치나. 외교부는 정보 공개 답변 시일인 지난달 29일 돌연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기까지 했는데, 그 사이 '윤미향 당선인은 '윤미향 의원'으로 신분

이 바뀌었다. 윤 의원을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남발하니 이 할머니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윤미향 의혹은 무조건 감추고 감싼다. 야당이 정의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에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기엔 정의연이 국민세금을 지원받아 어떻게 썼느냐의 내용이 들어있다. 납세자인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여가부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미향 의혹에 합구령을 내리고, 정의연은 외부 회계감사 요구에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영수증 공개 요구에는 '어느 시민단체가 그걸 공개하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자는 것인데 '위안부 운동을 폄훼하지 말라'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 제기도 무시한다. 그토록 내세우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간데없고 '윤미향 지키기'만 남아있다.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70년대 흑인 형사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에 잠입한 실화를 담은 영화 '블랙 클렌스맨'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한 장면으로 시작한다.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남부군 부상병 수백 명이 누워 있는 기차역 광장에서 의사를 찾아 헤매는 장면이다. 평소 "그 영화에서 묘사한 흑인들을 보면 욕지가 난다"고 말해온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는 그런 식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인종차별 영화라고 시위했다.

있으며 이 영화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는 아카데미 최초의 흑인 수상자였다. 한국에서는 1957년 처음 상영한 뒤 1972년 재개봉해 큰 인기를 얻었다.

▶영화는 19세기 중반 남북전쟁 당시 미국 남부의 정서를 담고 있다. 백인은 우아하면서도 끈기 있고 흑인은 멍청하거나 폭력적인 인물로 묘사됐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를 휩쓸던 1940년만 해도 미국 내 인종차별이 심해 흑인 배우들은 시상식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주인공 클라크 게이블이 "그렇다면 나도 시상식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해 다들 참석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KKK가 흑인들을 죽여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을 본 시인이 '이상한 과일 (Strange Fruit)'이란 시를 쓰고 빌리 홀리데이가 그 시를 노래로 불렀던, 흑인들에겐 여전히 암흑의 시절이었다.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HBO맥스가 영화 목록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삭제했다고 한다. 영화 '노예 12년'의 각본을 쓴 존 리들리가 LA타임스에 '공포의 노예제를 미화한 영화를 내려라'는 글을 기고한 다음 날이었다. 흑인이 백인 경찰에 목을 졸려 숨진 사건 이후 미국 내 흑인들의 분노가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언 리의 명작으로 옮겨 붙은 한국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3년 전에도 봉변을 당했다. 미국 멤피스의 유서 깊은 극장의 매년 여름 영화제 상영작 목록에서 빠진 것이다. 이때도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우월주의 테러가 일어나 흑인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었다. "당대 사회를 묘사한 작품일 뿐" "또 다른 형태의 예술 검열" 같은 주장들도 없지는 않다. 세계 영화사에 남을 줄 알았던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된 건가.

# 한국 진보, 양심의 절대화가 썩을 부른다

**양심은 결코 혼자만의 주관적 확신이나**  
**알고 학습의 수련과정 거쳐**  
**그 정당성 교차 검증해야**  
**권력의 자의적 양심은 국가적 재앙을 낳는다**

양심을 강조할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었다'고 말한다. 내면의 목소리로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한다. 하지만 우리는 양심의 이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양심과 악은 주관적 자기 확신이라는 점에서 같은 뿌리를 갖는다는 철학자 헤겔의 통찰이 충격적이다. 자신의 신념만을 절대시하면 주관화된 선이 악으로 변질된다. 양심이 선을 낳는가 여부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만 판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대표는 진땀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전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제시를 거부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으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명백한 물증까지 부인한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양심을 앞세워 읍소(泣訴)한다. 손해선 전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혐의에 분노하면서 역공을 펼친다.

진보 인사들만 그런 건 아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딸 부정부패 의혹을 부인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최근 1심 재판은 이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난 이들이 모두 철면피여서 무고함을 강변한다고 보지 않는다.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는 해석도 일면적이다. 양심으로 포장한 자기 확

신이 악으로 변형된 사례라는 진단이 훨씬 정확하다.

절대화한 양심이 권력을 업으면 거악(巨惡)이 된다. 양심과 악의 상호 침투라는 비밀은 기독교 집단으로 타락해버린 한국 진보를 잘 설명해 준다. 성경과 백함으로 결백을 호소한 한명숙 전 총리와 지지자들은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 정의의 사도를 자처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적은 불법과 부정으로 가득하다. 문재인 정권과 친위단체, 어용 지식인들의 양심은 구(舊)적폐를 능가하는 신(新)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행정·입법·사법권과 언론·시민사회까지 포획해 법치주의와 정의를 유린해 온 패권 집단이 양심 세력을 자처한다. 권력과 한 몸이 된 양심의 도착(倒錯) 증세다.

캄보디아 자국민 수백만 명이 도살한 폴 포트(1925~1998)도 순수하고 청렴했다. 제국주의 잔재를 척결하고 농업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도시와 학교, 화폐와 시장을 없앴다. 자신도 프랑스에 유학한 부농(富農) 출신이건만 모든 관료와 교사, 지식인과 종교인을 혁명의 적(敵)으로 숙청했다. 전 국토를 집단농장으로 만들고 가족까지 해체해 어린이들을 홍위병으로 길렀다. 킬링필드의 대량 학살이 그 결과다. 그럼에도 폴 포트는 최후 인터뷰에서조차 '나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단언한다. 프랑스 대혁명을 공포정치로 변질시킨 로베스피에르(1758~1794)는 '부패할 수 없는 자'(Incorruptible)로서 대의(大義)에 헌신했다.

자칭 양심 세력이 초(超)거대 현실 권력까지 장악한 것

은 조선 왕조 이후 문 정권이 처음이다. 역대 보수 정권은 양심 담론을 빌릴 엄두조차 못 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소수 정권에 불과했다. 문 정권의 행보가 국망(國亡)을 부른 조선조의 명분론과 원리주의를 담은 건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자의적 양심은 국가적 재앙을 낳는다. 민족적 양심을 빙자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는 한·일 관계 파탄과 외교적 고립만 불렀다. 검증을 건너편 탈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에 산업 생태계를 파괴한다. 민족 지상주의적 대북 굴종정책은 대한민국을 폭풍 속에 빠뜨린다. 이른바 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허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하지만 양심은 결코 혼자만의 주관적 확신이 아니다. 양심(conscience)은 라틴어 con(함께)과 scientia(알다)의 합성어다. 모두가 함께 아는 공유 지식이라는 뜻이다. 자기 확신이 양심으로 승격되려면 알고 학습의 수련 과정을 거쳐 지식처럼 그 정당성을 교차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과 한국 진보는 자신들의 주관적 믿음을 절대적 양심과 동일시한다. 합리적 비판조차 댓글 테러로 침묵을 강요한다. 이런 집단이 자신들이 지지른 부정과 불법, 민주주의 파괴를 시인할 리 없다. 폴 포트와 로베스피에르의 양심은 공포정치를 낳았다. 문 정권과 진보의 양심도 대중 독재로 폭주하고 있다. 모든 혁명은 혁명의 배반(背叛)을 잉태한다. 7월 공수처 출범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패권 집단의 절대적 양심이 파시즘의 악을 부른다.

윤평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36년 마거릿 미첼이 발표한 소설이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듬해 풀리처상을 받았다. 1939년 개봉된 영화는 제작비가 380만달러였는데 3억달러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현재 가치로 18억달러가 넘어 역대 미국 흥행작 1위로 추산된다고 한다. 아카데미 10개 부문을 휩쓸

# "코로나는 이제 시작일 뿐"

## 경고 흘려들지 말아야



신종 코로나의 수도권 대유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폐쇄에 이어 어제는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생활 방역 당시 하루 10~20명이던 새 확진자는 이달 들어 30~50명으로 오히려 배 이상 늘었다. 집단감염이 벌어진 곳은 서울만 11곳, 수도권 전체로는 20곳을 훌쩍 넘는다. 클럽과 볼센터, 교회, 병원, 물류센터, 운동시설, 방문판매센터, 군부대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새 확진자

의 90% 이상이 수도권 환자다. 그런데 방역 당국의 추적 조사는 사실상 미국에 빠진 상태라고 한다. 20곳 넘는 집단감염 사태 가운데 감염원이 누구인지, 어느 곳에서 감염돼 어디로 퍼졌는지 규명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방역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다면 수도권 대유행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환자용으로 수도권에 1800병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중 800병상에 이미 환자가 입원해 있다. 그렇다면 당장 울여름에 병상 부족 사태가 닥칠 수 있다. 경증·중증 환자별로 분리

치료가 가능하도록 추가 시설을 준비하고 의료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팬데믹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올봄 하루 5만명 수준이던 새 확진자는 남반구 국가 등지에서 환자가 폭증하면서 최근엔 13만명으로 치솟았다. 사망자도 하루 5000명 안팎이다. 미국에선 누적 환자가 200만명을 넘었고 일부 주에서는 2차 대유행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시작 단계" "야구로 치면 2회 정도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어제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수도권 감염 확산과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가 먼저다.



## SL Dental Centre on 4<sup>th</sup>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http://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mailto: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

기분 안좋아?  
고기 먹을래?



고기 나라

MEAT SHOP KOREAN BBQ

403) 282 8033

다양한 고기

- 순대
- 편육
- 막창
- 족발
- 곱창
- 떡갈비
- 돈까스
- 각종 탕
- 김치
- 돼지국밥
- 손만두
- 내장탕
- 갈비탕
- 사골육수
- 갈비탕

\* 50불이상 주문시 무료 배달해드립니다.

#33-3616 52 Ave NW, Calgary



우리에게 고기먹을까?